

신안 천일염, 2000년만에 中 시장 뚫었다

中 정부 전매제 폐지 검토... 6월 첫 수출 14만t 세관 통과

신안 천일염이 2000년 넘게 지속돼온 중국 소금전매제 폐지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국내 자치단체에서 중국에 소금을 수출한 첫 사례로, 군 단위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중국마케팅팀을 신설하는 등 중국 시장 개방에 선제 대응한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

신안군은 “지난 6월 수출된 신안천일염 14t(4만달러 상당)에 대한 중국 세관의 통관 심사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 중국 텐진항에 도착한 신안 천일염 제품의 통관이 4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 통관심사가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다양한 지역특산물의 중국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은 특히, ‘중국이 2000여년간 유지해온 소금 전매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에 따라 그동안 통관절차 등으로 대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신안군 천일염 수출량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가 소금시장 개혁과 정부기능 효율화를 위해, 기원전 7세기 시작됐던 국가의 소금독점을 이번 철폐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신문은 당시 중국 관영매체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2016년 소금 가격을 자유화하고 2017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국영 소금회사에만 공급해왔던 지역 생산업체들은 앞으로 지역 내는 물론 다른 성의

유통업자에게 소금을 팔 수 있게 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소금은 철과 더불어 역대 중국 왕조의 주된 수입원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신안군의 천일염 첫 수출은 그 의미가 크다.

중국은 춘추전국시대부터 일부 제후국들이 소금을 국가독점사업으로 지정해 생산과 유통을 통제했으며, 패권 확장을 위해 전쟁을 자주 벌이던 한나라 무제는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기원전 119년 전국 규모의 이른바 ‘소금’ 전매제를 시작했다. 역대 왕조가 이를 승계해 왔고, 중국 공산당도 1949년 정권을 잡으며 소금산업을 국유화한 뒤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소금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존재로 전락하면서 중국 정부는 2012년 한 해 소금 산업을 독점하는 중국국영소금회사에 1억1800만 달러(약 13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예

물단지가 되고 있다. 독점제에 유지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소금 전매제 철폐 수순을 밟고 있으며, 신안 천일염 등 외국인 소금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충신왕 때 소금전매제 도입 각업법이 시행돼 조선시대까지 비슷한 제도가 이어졌다.

권현우 신안군 문화관광과 중국마케팅 담당은 “그 동안 중국 시장 선점을 위해 중국마케팅팀을 신설하고, 중국 북경 대흥구와 자매결연 협정 등을 체결하는 한편 지난 3월에는 중국에 신안군 관광 특산물 홍보관도 설치했다”면서 “한·중 FTA가 조기에 발효되고 중국의 소금 전매제가 완전 폐지되면 대중국 천일염 수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광주·전남 의료시설 최고 외국인 환자 유치는 ‘미미’

의료관광 작년 2228명 전국 0.8%...해마다 줄어

의료관광 시장이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은 외국인 환자 유치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14면>

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내놓은 ‘광주·전남지역 의료관광 현황 및 정책과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의료관광을 위해 유치한 외국인 환자는 2228명으로 전국의 0.8% 수준에 그쳤으며, 이 비율은 2012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 지역의 의료 관광객 수는 지난 2011년 1.1%에서 2012년에는 1.5%로 다소 늘었으나 2013년 1.2%, 2014년 0.8%로 급격히 줄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도 전국의 1.7%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남·광주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수와 병상 수 등 의료관광 여건은 최상위 수준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결국,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인구 1만명당 의료기관 종사자 수의 경우 광주는 12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전남은 103명으로 도 단위 지역 중 2위였다. 인구 1만명당 주요 의료장비 수도 광주는 서울보다 많았으며, 병원급 의료기관 수와 병상 수도 광주와 전남 모두 최상위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유리한 여건들을 활용해 지역 사회가 적극적인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면 이 지역에서만 2020년 생산유발효과가 830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467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3075명에 달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출산율 1위 해남 엄마들의 행진 4일 해남군청에서 보건소까지 이어지는 해남을 중심으로가 수십대의 유모차로 가득 찼다. 해남군은 이날 함께출산율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념해 해남문화예술회관과 읍 시가지 등지에서 유모차 행진 음악회를 개최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전남 마늘·양파 FTA 파고 넘으려면 생산성 높이고 경작 규모 확대해야

발작물 경쟁력 강화 포럼

마늘, 양파 등 전남 발작물이 자유무역협정(FTA) 파도를 넘으려면 생산성을 높이고 경작 규모의 확대를 통한 규모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영 신민내유통사업단 부설연구소장은 4일 전남도 주최로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마늘·양파 등 발작물 경쟁력 강화 포럼’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날 마늘과 양파를 중국산과 국내산 가격 비교를 통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마늘의 10a당 생산성은 중국이 1299kg으로 제주(1590kg)와 경남(1499kg)보다는 낮고 전남(1116kg)보다는 높아 전남 마늘의 경우 중국산과 비교해 경쟁력이 낮았다. 특히 냉동마늘은 중국산이 국내 가격의 40% 미

만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 양파는 현행 관세 적용시 중국산과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이 있으나, 저울할당 관세 또는 무관세는 중국산 양파 가격이 국산의 46~67% 수준이므로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이 김 소장의 주장이다.

김 소장은 마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역 적용형 농기계 개발, 고품질 표준재배기술 확립, 연작장애 예방을 위한 녹비작물(꽃거름작물) 재배 확대, 경작규모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 창출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양파는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농업 관측정보의 효율적 전달을 통한 적정 재배면적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협, 서남부체소조합 등을 활용한 안정적 계약재배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현석기자 chadol@

전남 155곳에 ‘이순신’ 유적·유물

여수 45곳 최다...지자체간 협력체계 필요

유형화 및 콘텐츠의 적극적인 개발 및 문화자원의 역사·문화적 요소의 테마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물관팀은 또 “이순신 문화자원 테마화 과정에서 국비확보를 위해 시·군 간 경쟁을 지양하고 문화자원의 본질적 가치제고를 위해 시·군이 노력해야 한다”며 “유사 문화자원을 보유하는 지역 간에 융합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물관팀은 내년 1월까지 10명 내외의 평가단을 구성해 도내 이순신 문화자원 13개와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26개를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지표는 ▲상징성 ▲역사적 가치 ▲보존가치(실현가능성) ▲잠재가치 ▲이용성 등이다.

이번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이순신 문화자원 활용 방식이 유물, 유적 등 유형 문화자원에 의존하고 역사문화 프로그

램, 스토리텔링 등 무형문화요소 활용은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체험 프로그램, 현장해설교육, 탐방형 프로그램, 역사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이순신 문화자원의 무형적 요소의 발굴 및 활용을 위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물관팀은 이순신 문화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을 구축하고 다큐멘터리와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방안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물관팀은 “포털은 사료관, 인물관, 유적관, 설화관 등으로 구성하고 다큐멘터리는 순천역성, 거북선과 선소, 노랑해전을 주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

전남도내 이순신 관련 역사·문화자원은 모두 155곳에 분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가 전남관 등 45곳으로 가장 많고 장성 20곳, 해남 9곳, 고흥 8곳, 광양·진도·영암 각 7곳, 순천·나주·보성·화순 각 6곳, 장흥·강진 각 5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자원의 가치 제고와 보존, 중복 투자 예방 등을 위해서는 각 시·군 간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순천대 박물관팀은 4일 전남도로부터 의뢰받은 ‘이순신 문화자원 총조사 및 선양·활용방안’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이순신 문화자원 활용에서 무형적 요소의

밝은광주안과 의원

ICL(안내렌즈삽입술)

ICL이란?
ICL(Implantable Contact Lens-안내삽입콘택트렌즈)수술이란 고도근시 및 원시의 시력교정을 위해 개발된 시력교정수술로 각막은 그대로 보전한 채 특수 고안된 렌즈를 수정체 앞에 삽입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각막두께가 얇거나 심한 안구건조증 또는 각막질환으로 인해 라식, 라섹이 어려운 경우 ICL수술로 시력을 교정 할 수 있습니다.

렌즈삽입술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최신 설비를 갖춘 전문 병원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안전 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스미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인

밝은광주안과

난임극복을 위한 시엘병원 강좌

일시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시엘병원 별관 회의실
연자 최범채 원장

나이는 난임에 영향을 끼치는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높아질수록 가임력은 더 낮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5세 미만이고 1년동안 임신을 위해 노력했을 경우 또는 35세 이상이고 6개월 또는 그 이상 임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 난임 치료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57(광천동)
문의전화 : (062)606-1710